

광주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치유·기억·창업·감상법’

“배우는 건 많은데, 실제로 해볼 기회가 없어요.”
배움은 강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된다. 문화기획을 꿈꾸는 청년들의 갈증에서 ‘호랭이스쿨’이 출발했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청년문화허브가 운영하는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은 기획·운영·평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형 인큐베이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 기획서를 쓰고, 공간을 섭외하며, 관객을 만난다.

올해 5기 청년기획자들이 4월부터 구성해온 ‘첫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11월 광주 도심과 온라인을 무대로 잇따라 공개된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치유·기억·창업·감상법 등 일상의 감각과 맞닿은 주제를 다루며 모두 16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각기 다른 시선과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기획들은 도시의 기억을 새롭게 읽고, 정서적 돌봄과 창업의 현실, 예술 감상의 방식을 세밀하게 탐색한다. 거창한 이벤트 대신 생활의 언어로 실험을 이어가는 ‘작고 정확한 시도들’이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도시의 상처와 일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위로의 감각을 담은 기획들이 눈에 띈다.

5·18 시민군의 필체를 서체로 복원한 온라인 캠페인 ‘당신의 문장이 응원이 될 때’ (9일까지·정성영)는 시민이 남긴 문장을 모아 오늘의 다짐과 응원으로 잇는다. 치유 프로젝트 ‘대나무숲의 위(Up)로’ (8·15일·김예리)는 라온살림에서치유센터에서 자살 사별자를 위한 그림책·원에 테라피를 진행하며, 사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의 심리정서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 회복을 꾀한다.

재개발 지역 누문동의 풍경을 식물의 상징으로 되살린 ‘누문 프로젝트: 몬스테라 아단소니’ (16일까지·한효정)는 은광작은도서관 앞에 몬스테라 잎 모양의 ‘기억의 깃발’을 세워 사라지는 동네의 시간을 기록한다. ‘한 그릇의 기억식, 광주’의 5월을 담다’ (9일·김수연)는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의 기억 속 밥상을 동구인문학당 공유부엌에서 재현하며 음식 매개로 세대 간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호랭이 스쿨’ 청년 기획자들의 지난 프로젝트 모습.
〈호랭이스쿨 제공〉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

첫 구상 프로젝트 결과물 16개

11월 한달간 도심·온라인서 공개

5·18 시민군 필체 서체로 복원

재개발로 사라지는 누문동 기록

오월어머니 기억 속 밥상 등

청년들 시선따라 새 도시 얼굴 발견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 스쿨’ 5기 청년기획자들이 11월 한달간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한다. 지난 프로젝트의 모습.
〈호랭이스쿨 제공〉



반려동물 상실의 아픔을 창작으로 치유하는 ‘너의 숨결을 기억해’ (8·9일·김도은), 움직임과 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화치유 프로그램 ‘Mind Palette’ (8일·문세현) 등도 일상 속 정서 회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실무형 기획도 이어진다.

‘한 인테리어가 가장 비싼 실패가 되지 않도록’ (8일·양지수)은 안경박사 전대점 2층에서 열리며, 공간 기획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다뤄 예비 창업자들 ‘소비자’에서 ‘기획 주체’로 세운다. 식품 창업자를 위한 ‘까마귀 가이드’ (16일까지·정찬환)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컨설팅을 통해 진심 어린 지역 식품 브랜드의 가치를 전한다.

또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자기 기록 프로젝트 ‘나만의 취미 포트폴리오’ (15일까지·이수진)는 함께 성장하는 취미 커뮤니티를 실험하고, 사회·정서적 고립 청년을 잇는 ‘연·결’ (2·8·15일·강주리)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오모이데 파티룸 등에서 익명 편지와 전시 관람을 통해 느슨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만들어간다.

이밖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한 작품만 전시함으로써 ‘느린 예술’을 제안하는 ‘작품에게 온 초대장’ (8·9일·정영인), 한 사람의 삶을 독백극으로 엮은 온라인 프로젝트 ‘stoulier-인생 한 편’ (7~16일·박수인), 부모와 아이가 함께 꾸미는 공연 ‘Kid’s Stage: 아이들의 작은 추억’ (7일·최재영) 등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프로젝트 내용과 일정은 청년문화허브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랭이스쿨 학교장을 맡고 있는 청년문화허브 정두용 감독은 “호랭이스쿨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실험의 장”이라며 “관객들이 청년들의 시선과 감정을 따라가며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가을밤 음악으로 감성여행

소프라노 김소희, 오늘 광주예술의전당서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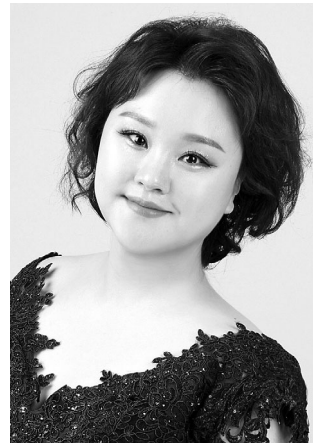
절어지는 가을밤, 무대 위에서 음악이 여행이 된다.

소프라노 김소희(사진)가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4회 독창회 ‘Well come to 음악일주’를 연다.

김소희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이탈리아 베르디국립음악원과 클라우디오 아바도 시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라 보엠’의 미미 역으로 주목 받았으며 현재 전남과학대학교 외래교수이자 S&S아트컴퍼니 대표로 활동하며 연주기획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는 전통적인 성악 리사이틀의 형식을 벗어나 관객이 음악으로 세계를 순회하는 ‘기획형 콘서트’로 꾸며진다. 관객은 이탈리아·독일·러시아·스페인·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정취를 영상과 선율로 함께 경험하며 ‘보는 클래식’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레퀴엠’ 중 ‘눈물의 날(Lacrimosa)’을 시작으로, 로시니 ‘베네치아 근돌라 경주’, 슈트라우스 ‘위령제’와 ‘세레나데’, 도니제티 오페라 ‘안나 볼레나’ 중 ‘울고 있나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등이 이어진다.



후반부에는 윤학준의 ‘별’, 정애련의 ‘별을 캐는 밤’ 등 한국 가곡과 함께, 로드리고 ‘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가 연주되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피아노 반주는 이기쁨이 맡는다.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과 라스칼라극장 아카데미를 졸업한 오페라 코치로 유럽 각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김소희는 “이번 공연은 관객이 클래식을 ‘듣는’ 데서 나아가 ‘여행하듯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만들고 싶었다”며 “지친 일상 속에서 음악이 건네는 잠시의 쉼과 위로를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2만원, 놀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족상잔의 비극 ‘6·25’

장흥 출신 신동규 작가가 7번째 소설집 ‘불나방’ 펴내

장흥 출신 신동규(사진) 작가가 7번째 소설집 ‘불나방’ (신아출판사)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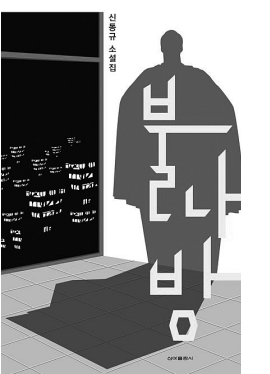
이번 소설집에는 ‘불나방’, ‘고잉 홈’, ‘고전감상’, ‘노고단에서 요새미타까지’, ‘다시 강만리에서’ 등 모두 9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신 작가는 “늦깎이로 등단한 터라 평생 두서너권의 단행본이나 펴낼 수 있었으려나 했는데 초과 달성했다”며 “나름 감개무량한 면도 있지만 독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와 걱정도 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신 작가는 대부분 사회에서 폄박받았던 민초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작품집은 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신 작가는 “이 소설은 6·25를 다룬 작품이다”며 “저는 호남정맥 중심부 심심산골에서 태어났기에 철이 들 무렵 가족이 관련된 여순사건을 겪으면서 제주 4·3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 35년만에 해방되었지만 귀국한 애국지사들은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이념투쟁을 벌였다”며 “종내에는 한국전쟁으로 비약하여 동족상잔의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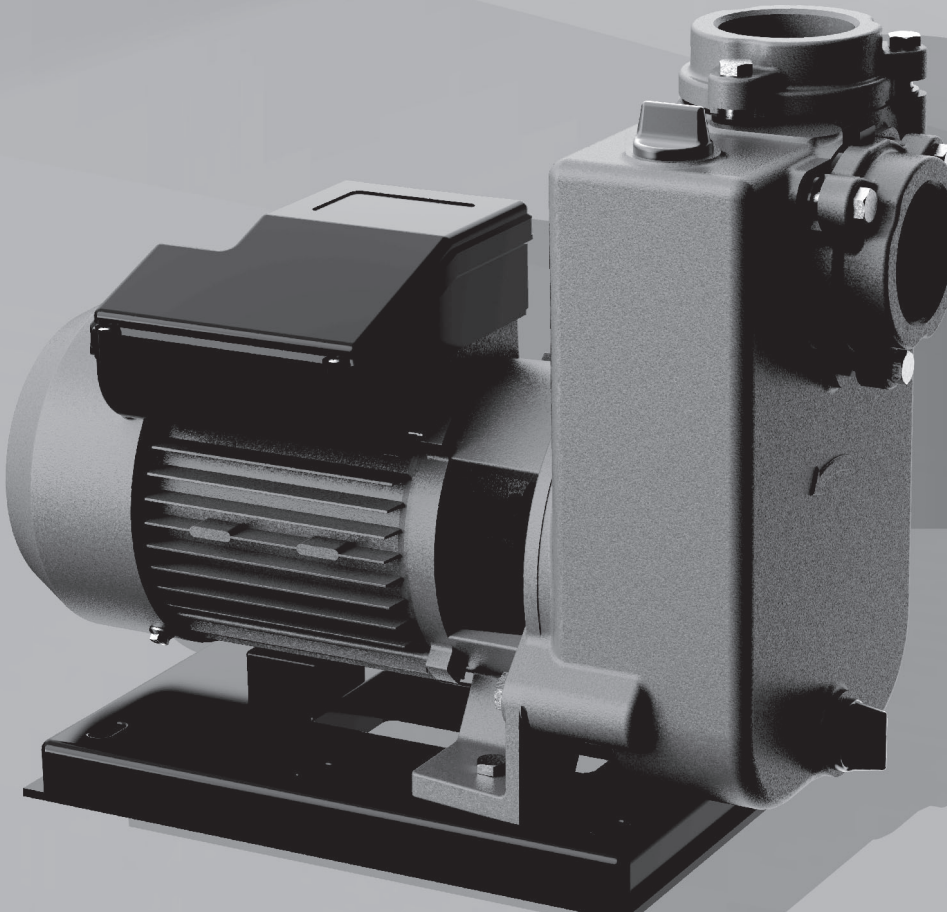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불나방은 하루살이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하루를 다 살면 천수를 누리거나 다름없다. 작가는 “밤마다 불을 향해 달려들어 자신을 태우는 미물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책에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등 4편의 평설도 실려 있다.

신 작가는 1998년 월간 ‘신동아’ 공모 1000만원 고료 논픽션 당선, 1999년 주간 ‘문예연구’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여수해양문화상, 전영택 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운명에 관하여’, ‘흰까마귀산’, ‘순비기꽃’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